

말씀의 샘

은혜가 흐르게 하라 < 에스겔 47:1~12 >

에스겔은 남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점은 기원전 59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성전은 훼파되고 남 유다는 멸망합니다. 신기한 것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와 회복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앞이 안보이는 가장 절망의 터널 한 복판에서 미래를 훤히 보고 계시고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서 40-4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하여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회복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하늘로부터 성전을 통해 공급되는 신령한 생명수, 은혜의 강,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물의 시작으로부터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 흐르면서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동산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섭리는 신령한 물이 흘러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토면적의 60%가 광야라고 합니다. 평균 강우량은 300mm 정도로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되지 않으며 그나마 가뭄이 들면 훨씬 더 척박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물 공급원은 그나마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210m나 낮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 호수의 물을 끌어올려 수십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송수관을 통해 물을 공급함으로써 사막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 땅 깊이 지하 1600m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그 물로 사막 한가운데서 대추야자 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식물들을 재배하여 외국에 다량으로 수출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을 소개한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 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힘입니다. 물이 있으면 비옥한 땅이 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물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막과 같은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물이 흐르고 복락의 강수가 말씀을 통해 적서지면 인생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갈수록 큰 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으로 부터 입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왔습니다. 생수의 강은 왕궁에서부터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동쪽은 여호와와 영광이 들어가던 곳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에서 성령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수정 같이 맑은 생수의 같이 흐릅니다. 성전의 크기와 금으로 된 그릇과 집기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생명은 생수가 흘러야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스며나온 이 물은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점점 불어납니다.

에스겔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 척은 약 450m가량 되는 길이입니다. 천 척씩 그러니까 450m씩을 재면 짚수룩 물은 깊어집니다. 발목, 무릎, 허리, 잠길만한 물로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물이 갈수록 범람하는 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들을 때는 스며 나오는 물처럼 세미하지만 믿고 나아가면 갈수록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이 깊어지는 것은 성령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잠기고 내 의지가 잠기고, 내 생각이 잠기고 점점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거스르지만,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물은 우리 삶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계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도 점점 은혜에 잠기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 때부터 나타납니다.

둘째, 은혜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에스겔 47: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가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그 은혜의 물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고 사람사이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없이 하려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아라바 바다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 사해도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에스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오히려 은혜를 받아도 소금 땅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흘러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되면 안됩니다.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심령, 아무리 교회와도 변화 안되는 심령, 살아나지 못하는 심령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가요? 진펄은 “늪, 습지 수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은혜가 흘러가도 흔적이 없습니다. 늪지는 물이 부어져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표시가 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해도 그때뿐입니다.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불행합니다. 개펄은 “수조, 물웅덩이”의 뜻을 가집니다. 자기만의 물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 은혜로 교제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꼭 차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은 물, 썩은 물을 비우지 않고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 ‘성경에 이름과 같이’는 바로 에스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 19:34)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환상에서 생명의 물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물, 부활하신 이후 보낸 성령의 강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는 심령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6. 8. 21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8. 2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무엘하 23장 8~9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중성이 능력입니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 삶이 있는
두란노 교회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